

허수경 시에 나타난 ‘당신’의 의미와 주체의 형성

유가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 1 서론
- 2 현전하는 ‘당신’과 손상된 주체
 - 2.1 ‘당신’ 이전의 이름과 태생적 슬픔
 - 2.2 2인칭 ‘당신’의 등장과 마음의 발견
- 3 무형의 ‘당신’과 바라보는 주체
 - 3.1 암시적인 존재로서 ‘당신’과 대상과의 접촉
 - 3.2 재편되는 의미로서 ‘당신’과 대상과의 거리두기
- 4 문제적 ‘당신’과 독립하는 주체
 - 4.1 ‘당신 부르기’와 당신이라는 주체
 - 4.2 ‘당신 버리기’와 결별하는 주체
- 5 결론

1 서론

이 논문은 허수경(1964~2018)의 시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어이자 대상인 ‘당신’의 의미가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적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허수경의 시 세계가 완결된 뒤, 시인의 시는 많은 논자들에게 의해 검토되는 와중이지만 시 세계 전체를 조망하고 변모 양상을 기술하는 작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허수경은 생전에 여섯 권의 시집을 발표했는데, 각각의 시집마다 특유의 기획과 언어를 보여준다.

시는 자아와 세계의 심부를 통과한다. 그렇기에 시인이 시를 통해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한 질문이다. 이때 허수경이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시어가 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당신’은 가장 중요한 시어 중 하나다. 우선 ‘당신’은 시 세계 전반에서 상당히 사용 빈도가 높은 시어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시집을 기준으로 허수경은 ‘당신’을 185회 사용했다.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문학동네, 2011)의 경우 ‘당신’은 72회 사용되었으며 ‘당신’을 포함하는 시편이 26편으로 절반 가까이 이른다.

또한 ‘당신’은 ‘너’ 또는 ‘그대’와 같은 일반적 지칭어와 다르게 일관적인 의미를 형성하면서 허수경 시 세계의 변모 양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당신의 쓰임은 시적 주체의 실존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당신은 자아와 대척점에서 있는 가장 궁극적인 대상이자 자아 그 자체다. ‘당신’이라 언술하면서 주체는 실존하고, 세계는 내면화된다. 하이데거가 제안한 세계-내-존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부름을 받아 존재 물음을 통해 본래성을 밝히게 되는 과정은 주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¹ 이 논문은 허수경의 시에서 ‘당신’이라는 시어가 변모하는 과정에 시적 주체 형성의 핵심이 놓인다고 보고, ‘당신’을 호명하면서 발생하는 시적 주체를 살펴본다.

허수경의 시 세계는 주체의 특성을 근거로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와 『혼자 가는 먼 집』을 초기로,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와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을 중기로, 『빌어먹을,

1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글방, 1998, 367쪽.

차가운 심장』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를 후기로 설정하고 각각의 시기 별로 달라지는 당신과 주체의 양상을 분석한다. 초기 시에서 당신은 연인이나 남성, 가족과 같은 현실세계의 존재로서 현전했다면, 중기 시에서 당신은 현전하지 않고 인간의 형태라고 확정할 수 없는 무정형의 존재가 된다. 후기 시에 이르면 당신은 폭발적으로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당신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시의식을 선명하게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의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허수경의 시가 종합적으로 어떤 길을 열어가는지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2 현전하는 ‘당신’과 손상된 주체

2.1 ‘당신’ 이전의 이름과 태생적 슬픔

초기 시에서 ‘당신’은 마을의 사내, 아버지, 연애 상대와 같이 현실 세계에 거주하는 대상이다. 이 시기의 시편은 진주와 서울이라는 현실 세계의 공간을 분명하게 전제한다. 첫 시집인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실천문학사, 1989)는 고모, 아버, 재실댁, 신혼부부, 어머니, 이 서방, 할머니 등 시인이 나고 자란 진주의 마을과 가족 공동체의 일원들이 채우고 있다. 여기에서 ‘당신’은 아버지를 지칭하는 3인칭 지칭어로만 사용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버지를 포함하여 각각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랑의 대상들이다.

이 시집에서 남성을 지칭하는 호칭어는 총각, 남성, 이녁, 청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들은 주체와 사적인, 또 특별한 관계를 맺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설정된 마을 공동체 내부의 일원이다.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서 당신은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감정을 촉발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현실 세계의 맥락 속에서 구체성을 띤 채로 나타나게 된다. 주체는 이들 대상을 어떻게 사랑해낼 것인지를 말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설정한다.

그 사내 내가 스물 갓 넘어 만났던 사내 물골만 겨우 사람꼴 갖춰 밤
어두운 길에서 만났더라면 지레 도망질이라도 쳤을 터이지만 눈매만은

미친 듯 타오르는 유월 숲속 갈아 내라도 턱하니 피기침 늑막에 차오르
는 물 거두어주고 싶었네

산가시내 되어 독오른 뱀을 잡고

백정집 칼잡이 되어 개를 잡아

청솔가지 분질러 진국으로만 고아다가 후후 불며 먹이고 싶었네 저
미친 듯 타오르는 눈빛을 재워 선한 물같이 맛깔 데인 잎차같이 눅히고
싶었네 끝내 일어서게 하고 싶었네

그 사내 내가 스물 갓 넘어 만났던 사내

내 할미 어미가 대처에서 돌아온 지친 남정들 머리맡 지킬 때 허벅살
선지피라도 다투어 먹인 것처럼

어디 내 사내뿐이라²

「폐병쟁이 내 사내」에서 주체는 폐병에 걸린 채로 마을에 온 ‘사내’를 독뱀과 개를 잡는 등 사납고 강한 존재가 되어서라도 돌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마을의 남성을 직접 먹이고 돌보고 싶다는 것은 허수경 초기 시의 대표적인 욕망이자 당대 비평에서도 여러 차례 포착된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희망은 자생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가 상상하는 행동은 이미 “내 할미 어미”가 보여준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 이행되어왔던 것이다. 마을 외부라는 세계에서 착취당하고 폭력을 당한 채로 마을에 돌아온 남성들을 돌보는 여성의 삶이 할머니-어머니-딸(‘나’)의 경로로 대대로 이어져 왔다³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시는 헌신적 사랑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모계를 통해 이어지는 지난한 가족사이다.

따라서 공동체 내부의 모든 현실적 대상은 ‘당신’이 된다. 시적 주체의 사랑은 고개에 올라 천년 동안 기다려도 더 기다릴 정도로(「진주 저물녘」), 상여에 자신의 속곳을 벗어 올려줄 정도로(「상여길」), 사나운 백정이 되어 곱국을 꿰여도 좋을 정도로 큰 것이지만 사랑의 대상은 공동체 내부에서 언제든지 새로 발생할

2 허수경, 「폐병쟁이 내 사내」,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1989, 34쪽.

3 이혜원, 「‘나’의 자각에서 ‘나들’의 발견까지-젠더 관점으로 보는 허수경과 김선우의 시」, 『계간 서정시학』 제76호, 서정시학, 2017, 18쪽.

수 있는, 고정되지 않은 존재들이다. 주체가 사랑하는 것은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다.

시집의 제목인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는 이 시기 허수경 시의 핵심적인 시 의식을 반영한다. 슬픔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름’인가? 슬픔은 결국 지난한 삶이지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이자, 주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이다. 부모와 조부모 세대에 있었던 전쟁의 역사는 지속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고, 바깥에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투쟁하다 다치고 죽고 있다. 태어나기를 슬픔 속에서 태어났으며 바깥에서 슬픈 일은 자꾸만 발생하는 와중에서 주체는 슬픔을 양식(糧食)으로 내면 의식을 형성하며 성장했다. 민중을 향한 폭력이 지속되는 이상 ‘슬픔’은 언제까지고 유전될 것이다. 결국 시인이 시를 쓰게 하는 힘, 시 의식의 핵심이 대상을 보고 느끼는 슬픔이 되는 것이다.

주체는 공동체라는 대상과 온전히 결속하고, 대상의 일에 몰입한다. 대상과 온전히 결속하고, 대상의 일에 몰입하는 것이 현존재가 세계-내-존재로서 일상 세계에 있을 때의 모습이다.⁴ 주체의 ‘슬픔’이 이렇게 깊은 층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주체가 세계-내-존재로서 대상과 완전히 결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체가 사랑하는 대상은 착취받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손상된 대상이기 때문에, 주체는 태생적으로 손상된 존재이다. 또한 자신을 잘라 내어주는, 즉 스스로에게 손상을 입히는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모계의 가족사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허수경 시의 시적 주체는 생존하게 된다.

2.2 2인칭 ‘당신’의 등장과 마음의 발견

1992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된 『혼자 가는 먼 집』은 첫 번째 시집에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혼자 가는 먼 집』의 시 세계를 나아간 목소리이기보다는 혼란으로 평가하는 당대의 평론이 여럿 제출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혼자 가는 먼 집』과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같

4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82-84쪽.

은 시기로 구분하는 것은 두 시집의 시편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주체의 형성 측면에서 결정적인 동일성을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체가 근원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점, 현실 세계의 대상을 중심에 두고 언술한다는 점이 같으면서도, 주체가 대상에게 갖는 사랑의 형태, 자신의 손상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혼자 가는 먼 집』의 대상은 주체가 도시 거리를 배회하다가 시선이 닿는 익명의 낯선 사람이거나 2인칭의 ‘당신’이다. 각각의 시편에서 도처에 존재하는 ‘초라한 남녀’(「불우한 악기」), ‘한 인생’(「하지만 애처로움이여」), ‘사내’(「표정 1」) 등은 모두 우울한 도시에 거주하는 생활인이다. 시적 주체 역시 이들과 비슷하게 배회하는 존재로서, 도시 생활에서 손상을 입고 갈 곳을 잃은 상태이다.

한편 여기서 ‘당신’이라는 시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나’라는 대명사가 등장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나의 상대자인 ‘너’, ‘당신’, ‘그대’ 따위의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체는 공동체의 운명과는 관계없는 개인의 감정에 몰입하면서 ‘당신과 나’라는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은 사랑의 대상이자 자신의 마음을 환기할 수 있는 대상이다. 『혼자 가는 먼 집』에서 ‘당신’은 주로 아버지 그리고 연인과 같은 사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형상화된다. 둘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얽힌다.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킁킁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움의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릴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킁킁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별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킁킁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⁵

여러 2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특히 ‘당신’은 다른 지칭어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쓰임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이라고 발화하는 것 자체가 주체의 시 의식을 추동하는 것이다. 「혼자 가는 먼 집」에서 화자는 ‘당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곱씹으며 당신을 직접적으로 호출한다. 그러나 당신을 부르는 이유는 당신이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는 말”이 “참 좋”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는 ‘당신’이라고 발화하는 순간부터 모든 기억과 감정, 세계가 촉발된다. 당신을 불렀을 때 주체에게는 슬픔과 상처뿐이었던 삶의 여정, 자연이 있는 세계의 풍경, 사랑과 사랑이 가져다준 상처가 재생된다. 그것들은 총체적으로 ‘상처’라는 손상의 감각으로 귀결된다. 그렇기에 최종적으로 ‘참혹’이라는 단어로 감정을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실존하던 인물이었으나 절대 주체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기의 모든 시편에서 당신은 듣는 이가 없는 상태에서 발화된다. 따라서 ‘당신’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혼잣말이다. 당신이 갖는 모든 의미는 청취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발신자 스스로가 다시 수신하면서 내부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주체는 ‘당신’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발동한다.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시가 전개되고 시 의식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있고,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당신에 대해서 참지 못해 부르면서 그 소리를 내부에 넣어 곱씹는 과정에서 시적 주체가 발생한다. 당신은 언뜻 완벽히 타자를 지칭하는 지칭어인 것 같지만 허수경의 시에서는 시적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혼자 가는 먼 집』에서 시적 주체는 시적 자아 안에 있으면서 자아 바깥에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특징은 이 시기의 시에서 ‘마음’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앞서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서 주체의 욕망과 감정은 명확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에서 사랑의 모양도 분명했고, 마음 속 멜랑콜리에 대해 해명하거나 질문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혼자 가는 먼 집』에서 주체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아픈 것이 어떻게 아픈 것인지

5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혼자 가는 먼 집』, 문학과지성사, 1992, 25쪽.

를 계속해서 진술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외부로 꺼내놓는다.

이 문제는 ‘당신’이 발견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신”을 부르면 과거의 기억과 고통의 감각이 선명해진다. 당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주체는 비로소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줄을 안다. 다시 말해 ‘당신’을 생각하고 부르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혼자 가는 먼 집』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당신’이라는 단일한 하나의 대상을 향한 사랑이다. ‘당신’을 부른다는 것, 즉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존재의 모호성을 부각시키는 일이자 존재의 기반을 근본적 단위에서 흔드는 일이다.

『혼자 가는 먼 집』에서 주체는 처음으로 ‘마음’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마음의 발견은 곧 개인성의 발견이다.⁶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공동체의 생각을 공유했던 주체가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마음’으로 상징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욕망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혼자 가는 먼 집』에서 주체는 비로소 개인으로 올라선다. 주체가 단일한 존재로서 ‘나’와 공동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존재 물음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3 무형의 ‘당신’과 바라보는 주체

3.1 암시적인 존재로서 ‘당신’과 대상과의 접촉

1992년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한 이후 허수경은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창작과비평사, 2001)를 출간하기까지 약 10년간 시집을 엮지 않는다. 시인은 잡지 등에 몇 편의 시를 발표하기는 하지만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에는 대부분을 실지 않고 새로운 시로 출간했다.⁷ 이 시기에 학술적 글쓰기와 소설 형식의 글쓰

6 일찍이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 이후의 문학에서 자기표현과 내면이 발견된 것을 근대적 개인의 발생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꼽는다. 즉 개인이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자신의 내면-마음의 발견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b, 2010, 51-56쪽.)

7 2001년 『계간 포에지』 가을호에 실린 김진수와의 서면 대답에서 허수경은 『혼자 가는 먼 집』과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사이에 발표한 시는 있지만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에

기를 활발히 했던 것과 달리 시집을 출간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허수경이 9년 정도의 시간 동안 다른 형식의 글은 출간할 수 있어도 시집은 엮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논문은 그 이유를 허수경이 시적 주체로서 내면세계를 확립하는 데에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개인 허수경으로서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가 혼합된 상태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물론 내면적으로도 고향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집으로 엮이지 않았지만 잡지에 발표된 글에서 허수경은 ‘당신’을 명확하게 구획할 수 없는 불확실한 대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⁸ 고향을 떠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시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당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당신이 나타나기 위해서 종래의 ‘당신’은 사라질 필요가 있었다.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에서 ‘당신’은 세 차례만 사용된다. ‘당신’이 주체의 내부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당신’이 나타날 것이 암시적으로 예비된다. 「늪은 들개 같은 외투를 입고」는 2인칭 ‘당신’이 등장하는 유일한 시이다. 여기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당신을 만”나는데, ‘당신’을 만나는 ‘나’는 단지 몸에 지나지 않고, 영혼은 따로 떨어져 나와 그 모습을 “명하게 지켜보”기만 할 것이라고 진술한다. ‘나’라는 존재는 잊힐 수 있으며, “기억은 섬광처럼 사라”질 수 있다. 나의 영혼만이 세계에 남아 그것을 지켜본다.

깊은 바다가 걸어왔네
나는 바다를 맞아 가득 잡으려 하네
손이 없네 손을 어디엔가 두고 왔네
그 어디인가,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네

손이 없어서 잡지 못하고 울려고 하네
눈이 없네

그 시들을 많이 심지는 않았다고 밝힌다. (김진수, 「전망없는 세계, 연민의 힘-포에지 초청 대담 허수경」, 『계간 포에지』 가을호, 나남, 2001, 187쪽.)

8 허수경, 「어떤 쓸쓸함에 대하여」, 『문예중앙』 여름호, 1994, 156-178쪽.

눈을 어디엔가 두고 왔네
그 어디인가,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네

바다가 안기지 못하고 서성인다 돌아선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고 싶다
혀가 없다 그 어디인가
아는 사람 집 그 집에 다 두고 왔다

글썩이고 싶네 검게 반짝이고 싶었네
그러나 아는 사람 집에 다, 다,
두고 왔네⁹

시적 주체는 신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영혼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화자는 깊은 바다를 “가득 잡”는 방식으로 접속하려 하지만 손과 눈, 혀와 같은 신체 기관의 부재로 실패한다. 화자는 손과 눈, 혀가 현재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현재 없다고 말한다. 이 시에서 바다를 인식하는 것은 감각 기관이 아닌 영혼의 일이다.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의 주체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현전성을 잃는다.

하이데거에 있어 예술은 사물의 본래적 가치를 보여주는 진리 사건으로, 그런 의미에서 고향은 본래성의 공간이다.¹⁰ 그렇다면 허수경에게 있어 지금의 상황은 고향 상실이자 본래성 상실의 위기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허수경은 현실 공간인 실제의 고향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이상으로 고향을 스스로 떠나고자 한다. 이는 시적 주체에게 있어 본래성은 현실 세계의 고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 자신과 언어 자신에 있기 때문이다.

고향인 한국의 장소와 현재 거주지인 독일의 장소, 그리고 시대와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이국의 장소가 혼합된다는 것이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의 큰 특

9 허수경, 「바다가」,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창작과비평사, 2001, 56쪽.

10 마르틴 하이데거, 신상희 역, 『휠덜린 시의 해명』, 아카넷, 2009, 28-29쪽.

정이다. 이 시기 허수경의 시 속에 등장하는 장소는 완전히 고향도 아니고 완전히 이국도 아니다. 주체는 고향의 영향권 속에 있는 자신을 자각하면서도 스스로는 고향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자각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체는 현실 세계의 고향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상태로 세계 전체를 돌아볼 수 있었다. 초기 시에서 시인의 노래는 고향 땅의 시조와 비슷한 리듬이었다면, 이 시기에서 시인의 노래는 어떤 인간이든 부르는 무국적의 노래가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어린 영혼이 부르는 노래가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에 나타나 있다. 주체는 영혼뿐이고, 그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영혼이기 때문에 어떤 몸과 영혼과도 합해 노래를 부른다. ‘당신’은 여기서 장소의 상실과 함께 사라졌지만, 주체는 영혼의 상태로 어떤 대상이든 몸 삼아 이들의 노래를 할 수 있다.

3.2 재편되는 의미로서 ‘당신’과 대상과의 거리두기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은 2000년대 이후 허수경 시의 대표적인 특징을 처음 보여주기 시작한 시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성민엽이 시집의 해설에서 ‘고고학적 상상력’을 처음 언급한 이래, 고고학적 상상력은 허수경의 시를 해석하는 중심 주제가 되었다. 실제로 발굴지나 유적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한 시편을 이때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시기의 시가 주체 내부의 갈등에 대해 답을 내리고 후기 시부터 일어나게 될 급진적인 변화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2년에 독일로 이주한 이후부터, 허수경에게 있어 언어와 장소성의 간극은 줄곧 이어져왔다.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에서 이 갈등은 일정 부분 봉합을 이루면서 시인의 시 세계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특히 표준어로 쓴 시를 먼저 신고, 뒤에 “내 말”이라고 칭하는 방언의 시를 신는 “진주 말로 혹은 내 말로” 기획에서 시인의 자신 내부의 어떤 간극을 봉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¹¹

11 전명환·이경수는 다중언어(독일어, 한국어, 진주 방언) 사용자로서 허수경의 ‘내 말’이란 표준어나 진주 방언의 한 쪽으로 번역할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한다.

‘당신’은 주제를 구체화하는 결정적인 소재와 같이 놓이면서 시상을 집약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에서 ‘당신’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물, 빛, 흙과 같이 형태를 확정할 수 없는 자연물에 빗대어 나타난다. 특히 이 시기의 시에서 ‘당신’이 ‘너’ 또는 ‘그대’와 같은 여타 2인칭 지칭어와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지 잘 나타난다. ‘당신’은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고 오로지 주체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존재이며 단일하다. 또한 당신의 특성은 다른 시에서도 유지된다. 당신은 그 특성을 일관적으로 드러내는, 선택된 시어이자 허수경의 시에서 문제적 존재이다.

빛인가, 당신, 저 손등 아래 지는 당신, 봄빛인가 당신, 그래, 한 상징이었을지도 모를 당신, 뭉근, 손에 잡히는 600그램 돼지고기 같은, 시간, 저 육빛인 당신, 흙, 당신은 빛 아닌, 물인가, 저 발 아래 일렁이는 당신, 물 냄새가 당신, 그래, 한 기호였는지도 모를 당신, 덜컹, 발에 잡히는 영상 25도 물 온도 같은, 시간, 저 온탕인 당신, 흙 당신은 물 아닌 흙인가, 저 땅 아래 실은 꿍고 있는 바위 같은 당신, 아직 형태를 결정하지 못한, 망설이는, 바위인가, 사방 100킬로 용암의 얼굴 같은, 저 낮익은 당신¹²

주체는 ‘당신’이 빛인지, 물인지, 기호나 흙이나 바위인지 질문한다. 당신은 낮익지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는, 빛과 물, 흙 등의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아직 형태를 결정하지 못한”, 무정형의 ‘당신’이 이 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신’의 존재성은 연인, 아버지, 마을 사람과 같은 인간적인 관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개념적인 존재로 변모한다. 여기서 당신의 인간적 특성이 아닌 빛, 물, 흙과 같은 무정형의 자연과 같은 특성이 강조된다.

그러한 조건 위에서 주체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 세계는 어딘

(전명환·이경수, 「허수경의 언어공동체 의식과 방언시 작업의 의미」, 『우리문학연구』 제 72호, 우리문학회, 2021, 478-483쪽.)

12 허수경, 「낮익은 당신」,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37쪽.

가에서 생명이 발생하고 생명을 억압하는 폭력이 있는데, 궁극적 대상으로서 당신은 언제나 주체의 ‘너머’에 있다. ‘당신’은 유물 속에 잠들어 있거나(「새벽 발굴」) 생명력을 잃기도 하고(“몸에 남은 물의 기억을 다 태우는 당신과”, 「불을 들여다보다」), 군인의 학살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한다.(「회빛 병원」) 당신은 마치 소설점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세계라는 그림에는 여러 빛깔을 가진 대상이 있지만, 시선이 모이는 한 점에 당신이 있는 것이다. 당신은 주체의 시선 안에서 세계의 발생과 탈락에 함께한다.

앞서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의 주체가 영혼의 상태에 있었다면,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에서 주체는 당신과 서로 다른 시간에 살고 있어 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세계의 폭력에 눈을 감고 퇴보하는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간과 공간에서 제약받는 인간이라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존재 물음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4 문제적 ‘당신’과 독립하는 주체

4.1 ‘당신 부르기’와 당신이라는 주체

허수경의 시는 후기에 와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여기서 ‘당신’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양적으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함은 물론 의미적으로도 명확한 특성을 드러낸다. 이 장에서는 주체가 ‘당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체 자신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를 확인한다. 후기 허수경 시는 서정시의 본질적 속성을 드러냄은 물론 서정시라는 고전적 형식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가장 선명한 존재로 드러나는 주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시집인 『벌어먹을, 차가운 심장』(문학동네, 2011)은 시의 길이가 길어짐은 물론 형식과 언어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 시집이다. ‘당신’은 전체 54편의 시에서 절반에 가까운 시에 사용될 정도로 시 세계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이 시기에 당신은 이름이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익명적 존재이다. 당신은 주체와 사랑의 기억을 공유하기도 하고, 인간의 형태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앞선 시기의 성질을 이어가기도 한다. 특히 ‘당신’이 사실상 주체 그 자체였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또는 주체와 생과 사를 순환하는 윤회적 존재라는 점은 이 시기

의 주요한 특징이다.

주체의 내면이 구성하는 세계 속에서 당신은 어떤 때에는 대상 중에 하나로 나타났다가, 시선을 끄는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기억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당신은 주체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호출되는 존재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가령 「여기는 그림자 속」에서 화자는 “이제 당신을 나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 도저한 수압에서 당신은 살아간다, 내 기억이여, 표면으로 올라오지 마라」에서 ‘당신’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근원적 정동이 된다.

극장을 나와 우리는 밥집으로 갔네
고개를 숙이고 메이는 목으로 밥을 넘겼네
밥집을 나와 우리는 걸었네
서점은 다 문은 닫았고 맥줏집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었
네

안녕, 이제 우리 헤어져
바람처럼 그렇게 없어지자
먼 곳에서 누군가가 북극곰을 도살하고 있는 것 같애

차비 있어?
차비는 없었지
이별은?
이별만 있었네

나는 그 후로 우리 가운데 하나를 다시 만나지 못했네
사랑했던 순간들의 영화와 밥은 기억하는데
그 얼굴은 봄 무슨이 잊어버린 눈(雪)처럼
기억나지 않았네

얼음의 벽 속으로 들어와 기억이 집을 짓기 전에 얼른 지워버렸지
뒷모습이 기억나면 얼른 눈 위로 떨어지던 빗처럼 잠을 청했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당신이 만년 동안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네
내가 만년 동안 당신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붙들고 있었네
먼 여행 도중에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나와 당신은 어린 꽃을 단 눈먼 동백처럼 중얼거렸네

노점에 나와 있던 강아지들이 킁킁거리는 세월이었네
폐지를 팔던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지하도를 건너가고 있는 세월이었
네
왜 그때 헤어졌지, 라고 우리는 만년 동안 물었던 것 같네
아직 실감 나지 않는 이별이었으나
이별은 이미 만년 전이었어

그때마다 별을 생각했네
그때마다 아침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던
다리 밑에 사는 거지를 생각했네
수수께끼였어,
당신이라는 수수께끼, 그 살(肉) 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진 대륙
들은
희빛 산맥을 어린 안개처럼 안고 잠을 잤을까?¹³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의 당신은 주체에게 존재 물음을 촉발시킨다. 「수수께끼」에서 ‘당신’으로 추정되는 현실 세계의 연인과 ‘나’는 이별한다. 그러나 이별한 이후에 ‘나’는 잠에 들었을 때, 추상적인 세계로 진입하면서 ‘당신’을 다시 만

13 허수경, 「수수께끼」,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28-29쪽.

나게 된다. 이별을 선언했던 ‘당신’과 만 년이나 되는 시간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현실적 맥락 이상의 근원적 관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과 주체는 무위의 상태¹⁴에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도 서로의 얼굴을 만 년이나 바라보면서 고통을 나눌 정도로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관계이다.

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별한 이유는 북극곰의 도살과 같은 두 사람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우연적 요소이다. ‘당신’과 주체의 운명은 세계가 운행하는 방향과 함께한다. 이때 당신은 과거에서 계속해서 주체를 바라본다. 표면적으로 주체는 당신의 기억을 떠올리기를 원하지 않고, 이별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주체는 기어코 당신을 떠올린다. 당신을 떠올리고 당신에 대해 말하는 모든 순간은 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 물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층위에서 ‘당신’과 주체는 동일하다.

4.2 ‘당신 버리기’와 결별하는 주체

‘당신’이 ‘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곧, ‘당신’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허수경의 마지막 시집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문학과지성사, 2016)에서 주체는 당신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당신을 딛고 일어설 체비를 마친 듯하다. 이 시기의 시에서 당신은 주체와 몇 가지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당신은 결별하거나 모종의 방식으로 주체의 곁에서 사라진다. 또는 주체가 직접 당신에게 결별을 선언한다.

「포도나무를 태우며」에서 주체는 “내가 당신을 죽였다면 나는 살아 있습니까”라고 진술하며 마음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죽이는 방식으로 삭제하고자 한다. 「가을 저녁과 밤 사이」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신을 두고 가는 거”라고 자답한다. 당신과 결별하는 것은 주체가 의도적으로 내린 선택이라는

14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에 와서 ‘당신’은 주체와 동일화하고, 주체와 공동의 운명을 공유한다. 주체의 현존은 ‘당신’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신과 주체는 공동-존재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75쪽.)

점을 주목해야 한다.

허수경의 시 세계는 많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시기를 합해 보아도 사랑이라는 가치는 한 순간도 빠진 적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주체는 언제나 사랑을 해 왔지만, ‘당신’과의 사랑에 있어 주체의 사랑은 언제나 전유되었다. 마을 공동체와 민중에 대한 사랑, 개인적 불안과 감상성, 전쟁과 폭력에 희생당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계 전체에 대한 사랑의 감각 등으로 ‘당신’과 주체의 사랑은 전이되곤 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의 시편에서 사랑은 오로지 당신과 주체의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세계의 아픔이 주체에게 흘러들어와서 주체가 느끼는 감정이 곧 세계의 현황이 되었던 이전의 시와 다르게, 인간으로서 주체의 내면에 느껴지는 감정을 완전히 주체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는 자기 내면의 감각을 이전 시기보다 더 집중하여 살펴보기 시작했다. 당신으로 인해 촉발되었던 존재 물음의 과정 역시 개체의 내면으로 방향을 돌린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우리는 만났다

얼어붙은 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내 속의 할머니가 물었다, 어디에 있었어?

내 속의 아주머니가 물었다, 무심하게 살지 그랬니?

내 속의 아가씨가 물었다, 연애를 세기말처럼 하기도 했어?

내 속의 계집애가 물었다, 파꽃처럼 아린 나비를 보러 시베리아로 간 적도 있었니?

내 속의 고아가 물었다, 어디 슬펐어?

그는 답했다, 노래하던 것들이 떠났어

그것들, 칠새였거든 그 노래가 칠새였거든

그러자 심장이 아팠어 한밤중에 쓰러졌고

하하하, 붉은 십자가를 가진 차 한 대가 왔어

소년처럼 갈 곳이 없어서
병원 뜰 앞에 앉아 낡은 뼈를 훑던
개의 고요한 눈을 바라보았어

간호사는 천진하게 말했지
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죽은 사람보다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손들이 더 많대요 뼈만 남은 손을 감싸며 흐느끼던 손요

왜 나는 너에게 그 사이에 아무 기별을 넣지 못했을까?

인간이란 언제나 기별의 기척일 뿐이라서
누구에게든
누구를 위해서든

하지만
무언가, 언젠가, 있던 자리라는 건, 정말 고요한 연 같구나 중얼거리는
말을 다 들어주니

빙하기의 역에서
무언가, 언젠가 있었던 자리의 얼음 위에서
우리는 오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처럼
아이의 시간 속에서만 살고 싶은 것처럼 어린 낙과처럼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악수를 나누었다

헤어졌다 헤어지기 전
내 속의 신생아가 물었다, 언제 다시 만나?
네 속의 노인이 답했다, 꽃다발을 든 네 입술이 어떤 사랑에 정직해질

때면

내 속의 태아는 답했다, 잘 가¹⁵

「빙하기의 역」은 허수경의 시 세계가 걸어온 경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빙하기의 역”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얼어붙은 시간이 간직된 역이다. 주체는 할머니, 아주머니, 아가씨, 계집애, 고아의 모습을 한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화를 나누는 신생아와 노인, 태아는 사실 모두 주체의 내부에 있다. 신생아와 노인은 각각 과거와 미래의 시간성을 의미한다. 사랑은 주체가 전 생애를 걸쳐 언제나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전유된 방식으로 대상이나 공동체, 세계로 전이되어 왔다. 이후 태아는 결국 상대에게 ‘잘 가’라고 말하게 된다. 앞으로 찾아올 미래를 앞질러 보았던 주체는 이제 미래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자 한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에서는 죽음 의식이 전면에 드러나는 동시에 주체의 실존이 선명해진다. 이전 시기의 시에서 세계에 대한 사랑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을 염두에 두면서 당신과 주체라는 두 자아는 비로소 화해를 이룬다. 세계라는 대상에 의탁한 채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실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침내 ‘당신’과 결별한 주체는 스스로의 동력으로 살아낼 준비를 마친다.

5 결론

이 논문은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당신’의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 당신과 주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시적 주체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허수경의 시 세계가 시인이 세상을 떠남에 기해 종결된 것이 지난 2018년이다. 그 이후로 허수경의 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아직 시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 세계를 3개의 시기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시적 주체의 실존 문제는 허수경 시의 핵심적인 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15 허수경, 「빙하기의 역」,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지성사, 2016, 111-113쪽.

한다. ‘당신’은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나타나 주체가 존재 물음을 하도록 촉구한다. ‘당신’이 존재 물음을 촉구하는 듯 주체의 곁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하이데거가 제안한 현존재의 존재 물음 과정을 참조하였다. 당신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모습을 바꾸면서 최종적으로는 주체의 안으로 포함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체와 당신은 언제든지 말 한마디로 이별할 수 있는 관계인 듯하다가도, 만년 동안 서로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사랑으로 비롯된 관계이다. 진정으로 깊은 사랑은 상대를 깊이 바라보면서도 무엇인가로 고정하지 않는 무위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허수경 시의 여정은 그러한 사랑으로 향하는 길이다.

허수경은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길을 선택한 독보적인 시인이었다. 시인의 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현재적인 맥락을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시인이 단독자로서 경험했을 외로움의 크기는 상당한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허수경의 문학은 혼란과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아름다움을 선연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써 큰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허수경,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1989.

_____, 『혼자 가는 먼 집』,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어떤 쓸쓸함에 대하여」, 『문예중앙』 여름호, 1994, 156-178쪽.

_____,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창작과지평사, 2001.

_____,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_____, 『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_____,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지성사, 2016.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b, 2010.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글방, 1998.

_____, 신상희 역, 『훔덜린 시의 해명』, 아카넷, 2009.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논문

이혜원, 「‘나’의 자각에서 ‘나들’의 발견까지-젠더 관점으로 보는 허수경과 김선우의 시」, 『계간 서정시학』 제76호, 서정시학, 2017, 12-28쪽.

전명환·이경수, 「허수경의 언어공동체 의식과 방언시 작업의 의미」, 『우리문학연구』 제72호, 우리문학회, 2021, 455-489쪽.

기타

김진수, 「전망없는 세계, 연민의 힘-포에지 초청 대담 허수경」, 『계간 포에지』 가을호, 나남, 2001, 157-196쪽.